

한국의 정당 브랜드하에 정치기부금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

박영환*

| 목 차 |

I. 서론	III. 데이터, 모델, 변수 측정
II. 정치기부금, 정당, 그리고 정치 적 대표성	IV. 통계분석 결과
	V. 결론

| 논문요약 |

정치참여의 불균형으로 인한 정치적 결과의 왜곡은 정치적 자원의 소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치적 자원들 중에서 돈의 영향력은 절대적이다.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치참여나 이익의 집약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권의 영향력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 모금에서 정치기부금의 비중이 커지면서 정치기부금을 많이 제공하는 사람들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이 불평등 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논문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원리인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의 영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한다.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정당이 조절하는 정치기부금의 영향력이 대표자들의 대의활동에 어떤 작용을 미치는지 조사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정치적 대표와 의원들의 후원회 기부금 자료를 결합한 집합데이터를 활용하여 정치기부금과 정당의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정당 브랜드하에 기부된 정치자금의 영향력은 대표자들의 민주적 반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정치기부금, 정치적 대표, 정당 브랜드, 정치참여, 불평등 민주주의

* 영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사.

I. 서론

대의민주주의에서 대표자를 뽑아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은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 후보자들은 각종 선거운동을 펼치고 선거조직을 운영하는 데 적지 않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최근에는 매스미디어의 발달로 TV를 활용한 광고와 홍보가 선거운동에 효과적이라는 점이 부각되면서 후보자들은 돈 없이는 선거를 치를 엄두도 못낼 지경에 이르렀다.

비단 선거에서만 돈이 드는 것은 아니다. 당선된 후 대표자들은 정책 개발이나 입법활동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에 직면하게 된다. 또 지역구 내의 각종 행사, 지역사무실 운영,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수렴 등에도 돈이 들어가게 된다. 더 나아가 대의민주주의 운영이 정당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정당 조직의 유지와 정당 간 경쟁에 필요한 홍보 등 선거정치뿐만 아니라 정당정치에서도 돈은 불가피한 존재가 되었다.

최근 들어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결과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미디어에서 제기되면서 정치자금¹⁾은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사회는 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정치참여에 있어 불균형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소득자는 저소득자에 비해 각종 정치적 영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자주 가지며 또 정치기부금도 더 많이 제공하면서 대표자들에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특히 선거 경쟁에서 득표를 위한 수단으로 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치인들은 정치자금 확보에 더욱 열을 올리게 되고 그 결과 대의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정치자금 확보에 목말라 있는 정치인들은 검은 돈의 유혹에 빠져 거액의 대가로 불법 부당한 보답을 제공하는 부정부패를 양산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자의 정치활동이 이념적 대결을 통한 정책 대안 제공보다 정치자금 확보에 치중하면서 특정 계층의 이익에 더 반응하는 편향된 대의활동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정치학자들은 돈의 정치적 영향력이 정치과정을 지배하는 금권정치의

1) 이 논문에서 정치자금은 선거뿐만 아니라 정치활동 전반에 소요되는 금전적 비용을 포괄적으로 의미한다.

위험성을 제기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대표자와 대중 간의 원활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을 가능케 해주고 대의민주주의의 유지를 가능케 해주는 정치자금의 긍정적 역할에 주목하기도 한다(예를 들면 전용주·서영조 2005).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오고 있다. 정치자금의 정치적 결과, 정치자금 기부 요인, 정치자금 모금에서의 차이, 정치자금 지출 양상 등 정치자금 전반에 대한 포괄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놀랍게도 관련 연구에서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부분은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정치자금의 영향력 여부이다. 대중의 정치적 의견과 선호를 정치과정에서 책임적으로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는 대표자들이 돈의 영향력에 의해 편향된 대의활동과 불평등한 의사결정을 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장래를 어둡게 할 것이다. 특히 대표자를 선출하는 기제인 선거에서 돈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현실에서 정치자금과 정치적 대표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진단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아쉬운 부분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본 논문은 경험적 자료를 활용하여 정치자금, 특히 한국 국회의원들의 후원회 모금액이 의원들의 대표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대의기구로서 정당이 어떻게 정치후원금과 정치적 대표의 관계를 조절하는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II장에서는 정치적 기부금 전반에 관한 선행 연구들을 정리한다. 이 과정에서 정당이 정치적 기부금과 정치적 결과의 관계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 III장은 경험적 분석에 필요한 데이터와 분석 모델 수립, 그리고 변수 측정을 다룬다. IV장은 경험적 결과에 대한 분석을, V장은 경험적 결과에 대한 요약과 함께 이 결과가 한국의 대의민주주의에 함의하는 바를 설명한다.

II. 정치기부금, 정당, 그리고 정치적 대표성

한국 정치학계에서 정치자금에 관한 연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공개하는 정치자금 데이터 활용 시점에 따라 연구 주제와 범위가

다르게 진행되어 왔다. 데이터 활용 이전에는 주로 정치자금제도 변천과 제도화 과정, 개정 정치자금법의 내용 등을 다루었으며, 데이터 활용 이후부터는 정치자금 조달, 출처, 지출 양상에 대한 분석, 정치자금과 선거의 관계, 정치자금 수입 결정 요인, 후원회 기부금 기부 동인 분석 등과 같은 경험적인 자료를 이용한 실증적인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연구의 양상이 어찌되었건 중요한 것은 의원들의 정치자금 수입 결정 요인이라든지, 후원회 기부금의 기부 동인에 관한 연구들이 대의민주주의 함의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으로써 정치자금은 필연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 연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만일 시민의 정치참여나 대표자에 의한 대의활동이 금권에 의해 결정된다면 이는 대의민주주의 이상과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들이 이루어 놓은 성과 위에 정치기부금이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작동에 있어 정치자금의 역할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의 정치자금과 관련한 초창기 연구들은 정치자금 제도와 개정 정치자금법의 내용, 정치적 의의와 문제점, 대안 제시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김영래(1994)는 1994년까지 총 7차례 개정된 정치자금법의 변천과정을 정리하면서 법 개정이 유권자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졸속으로 이루어졌음을 지적하였다. 7차례 걸친 개정 정치자금법은 주로 정치자금 조달 측면에서 주안점을 둔 나머지 정치자금의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는 고비용 저효율의 개선 문제나 투명한 정치자금 운영 방안 마련에는 실패하였음을 지적하였다. 심지연(2003) 역시 2000년까지 개정된 11차례의 정치자금제도를 분석하면서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모금과 지출, 그리고 국고보조금의 배분에 있어 기득권 정당들의 담합으로 인해 개정 정치자금법은 정치부패 근절과 정당민주화를 가져오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하였다. 김용호(2002)는 정치자금제도 개선은 정당구조 개혁과 의원의 자율적 입법활동과 관련 있음을 주장하면서 정치자금제도 개선에 있어 정치자금의 공급 방식에 주목하였다. 소액다수의 당비모금액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매칭펀드제의 도입과 국고보조금에서 선거비

용 지원을 후보자에게 제공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였다. 한편 전용주·서영조(2005)는 개정 정치자금법이 추구한 정치적 부패 근절과 정치적 평등이라는 개혁은 원래 취지와 달리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정치자금에 대한 지나친 규제는 후보자와 유권자 간 정치적 의사소통을 방해할 수도 있으며 특히 제도 개선으로 도입한 소액다수기부제의 경우 선거에서 비현직 도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경험적 차원에서 정치기부금에 관한 연구는 선관위가 공개하는 정치자금 데이터나 후보자 인터뷰를 활용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의 기부, 조달, 지출 및 선거와의 관계 등에 대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의성·임성학(2002)과 임성학(2002)의 연구는 전반적인 선거자금의 수입과 출처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김의성·임성학(2002)은 선관위의 1996-2000년 정치자금 관련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현역의원의 정치자금 수입원은 후원금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여당 소속 의원일수록 후원금의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을 발견하였다. 임성학(2002)은 16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 중 경쟁 정도를 기초로 총 70명(당선자와 차점자)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신문기자들에 의한)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선거경쟁이 치열한 선거구와 현직의원일수록 선거자금을 많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선거자금의 출처는 후보의 개인자금, 후원금, 당 지원금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후원금의 경우 여당 후보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밝혀냈다. 한편 정준표 외(2013)는 보다 정교한 정치자금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의 결정 요인을 조사하였다. 정준표 외는 19대 총선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제출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보고서”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후보자의 당선 경험과 패권정당 소속 여부 등이 정치자금 수입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밝혀냈다. 그리고 후원회 기부금의 수입에서도 당선 경험이 있거나 패권정당의 소속 여부가 유의미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임을 발견하였다.

정치자금과 선거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선거자금의 효과는 현직자보다 도전자에게 더 크게 작용한다는 소위 ‘제이콥슨 효과’(Jacobson 1978; 1980; 1990; 1997)의 타당성을 검증하

기 위한 경험적 연구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제이콥슨 효과가 적용되고 있음을 밝힌 연구가 있다(김의성 2004). 김의성은 선관위 자료를 활용하여 16대 총선을 분석한 결과 제이콥슨 효과를 확인하였고 전반적으로 선거자금의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열거한 연구에서 아직 연구가 미진한 분야는 정치자금의 대표자들의 대의활동에 미치는 영향력의 여부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시간, 돈, 정보, 신뢰와 같은 정치적 자원은 정치적 참여를 결정하는 중요요소이다. 대표자들의 정책결정과정은 시민들의 정치참여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만일 정치적 자원의 비대칭적 소유로 인해 시민들의 불평등한 참여가 발생하고 그 결과 대표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이 왜곡되어지면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장래를 어둡게 만들 것이다. 미국이나 한국에서 정치자금과 정치적 대표성(정책결정과정에서 대표자들의 일반 시민들의 선호에 대한 반응성)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는 미진한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정치자금과 의원들의 법안 투표 및 입법적 결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예를 들면 하원에서 의원들의 정치자금과 호명투표(roll-call voting)의 관계에서 그 관계가 약하다는 주장(Ansolabehere et al. 2003)과 강하다는 주장(Stratmann 2002; 2005)이 대립하고 있다. 종속변수가 의원들의 호명투표 대신 상임위원회에 대한 영향력이라든지 법안 수정 및 법안의 현상유지로 바뀌었을 때 정치자금의 일정한 영향력을 확인한 경험적 연구들도 있다(Hall & Wayman 1990; Powell 2006).

그런데 이 연구들의 결과들은 정치자금 기부의 동인이 무엇인가에 따라 의원들의 정치적 대표와 관련하여 그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행 연구들은 기부자의 정치기부금 의도를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는 기부자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이유는 기부의 대가로 얻는 혜택을 추구하려는 동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면 에너지 기업은 의회가 에너지 산업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기 위해 관련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 이익단체, 개인들이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동인을 투자(investment)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Box-Steffensmeier & Dow 1992; Durden 1976;

Kay & Rubin 1981; Morton & Cameron 1992; Snyder 1990; Snyder 1993; Welch 1982). 반면에 기부자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동기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 때문이라는 것이다. 개인들이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행위는 자선 행위에서 오는 효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인이나 단체가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는 정치참여의 또 다른 한 형태로써 자신의 이념과 가까운 정치인에게 또 선거에서 지지하는 정치인에게 도움을 주는 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점에서 정치기부금의 기부 동기는 소비(consumption)를 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에 비유할 수 있다(Ansolabehere et al. 2003; Fuchs, Adler & Michell 2000; Morton & Cameron 1992; Mutz 1995; Poole & Romer 1985). 한국에서도 최근에 선관위에서 정치자금 관련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정치자금의 기부 동기를 밝히려는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엄기홍(2006)은 2004년 선관위에 신고된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 중 고액기부자 명단을 대상으로 후원금 기부 시기에 따라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한 결과 기부자들은 소비를 목적으로 후원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러나 뒤이은 연구(엄기홍 2008)에서는 특정의 기부 성격을 밝혀내는 데 실패하였다. 2004-2006년 동안 국회의원의 후원회 기부금을 분석한 결과 기부금 유형별(소액기부, 고액기부, 전체기부)로 기부 동기가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이 정치기부금의 동기를 밝혀내려는 연구 시도는 정치기부금이 정치적 대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유추하는 데 유용한 도움을 준다. 대표자들의 대표 행위를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표자들이 시민들의 평균적인 선호에 반응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다면 정치기부금의 기부 동기에 따라 대표자들의 대표 방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기부자의 정치자금 기부 동기가 소비적 성격을 띤다면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은 높을 것이다. 특정 대가를 바라며 투자하는 정치기부금적 성격이 아니라 선호하는 후보자에게 지지의 표현으로써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가 반응하는 대의활동은 시민들의 평균적인 선호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반면 정치기부금의 성격이 투자적 성격을 띤다면 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은 낮게 나타날 것이다. 그 이유는 특정 집단이나 특정 개인의 이해관

계가 반영된 정치기부금을 받은 대표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특수 이익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대의활동은 시민들의 평균적인 선호에서 멀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정치자금과 정치적 대표의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 가지 더 있다. 현실적으로 대의민주주의하에서는 주권은 물론 국민에게 있지만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이 선거구민의 위임(mandate)을 받아 대의활동을 펼쳐 나간다. 지역의 주민을 대표한다는 측면에서 의원의 대의활동이 지역주민의 선호에 구속될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의 의원은 하나의 헌법기관이자 대표기관으로서 의원의 위임은 비단 특정 선거구민에게만 구속되지 않는다. 의원들의 역할은 그들의 지역 사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우선하고 국정 전반에 걸쳐 각종 입법, 재정, 감시 등의 역할을 하면서 특정 지리적 경계를 넘어서는 대의활동을 펼쳐 나간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의원들을 후원하는 정치기부금의 성격도 지리적 제한을 넘어서 확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의원들이 모금하는 정치자금은 그 의원들이 속한 특정 지역에 의해 꼭 조성되지는 않는다. 미국의 경우 연방하원 선거에서 지리적 제한을 넘어선 선거자금의 기부 양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그 규모는 커지는 것으로 밝혀졌다(Gimpel et al. 2008; Grenzke 1988). 즉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기부를 받는 선거자금은 자신들의 지역구민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전국적 수준에서도 조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통계적 수치는 이를 잘 뒷받침해 준다. 1970년대 연방하원 선거에서는 대략 50퍼센트 정도였던 것이 1990년대 중반에서 2000년대 초반(1996-2004년)에 와서는 평균 60퍼센트의 선거자금이 지리적 제한을 벗어나서 기부되었다(Gimpel et al. 2008; Grenzke 1988). 선거구의 지리적 제한을 넘어서 이루어지는 선거자금의 기부는 기부자와 후보자 간의 개인적 친밀관계에 의해서보다는 치열한 선거 경쟁, 후보의 인기, 후보의 이념, 정당의 브랜드에 따라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점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거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호와 가깝거나, 유권자들이 선호하는 정당 소속의 정치인일수록 전국적 수준에서 정치자금 기부를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치적 대표의 성격도 단순히 정치기부금의 기부 동기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제3의 요인에 의해 조절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제3의 요인으로 정당의 역할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대의기구인 정당은 정당정치가 발전하고 책임 정당 모델이 등장하면서 시민과 의원의 관계를 긴밀히 연계시키는 정치적 행위자로서 그 역할이 중요해지기 시작하였다(박영환 2016). 더욱이 오늘날 현대 산업사회가 기능적으로 전문화·복잡화되기 시작하면서 특정 지리적 범위를 벗어나 전 사회적으로 얽히고설키는 전국적 이슈들이 대거 등장하고 여기에도 도시화와 산업화 등으로 인한 인구유입으로 과거 동질적인 선거구의 구성이 이질성의 특징을 띠기 시작하면서 정당의 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박영환 2016). 다시 말해, 전국화되고 복잡화된 이슈들을 해결해 나갈 당사자로 단순한 지역을 대변하는 지역구 정치인보다 전국적 조직과 정책을 갖춘 정당이 대표의 주체로서 핵심역할을 담당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박영환 2016). 특히 한국처럼 정당의 기울기가 강한 국가에서 의원의 대의 역할을 매개하고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당의 비중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정치기부금이 의원의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에서 정당의 역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본 논문은 대표자들의 정치적 대표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치참여의 자원들 중 돈의 역할에 주목하여 정치기부금과 의원의 대의활동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본 논문은 현대 사회에서 대표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즉 단순한 특정 지역에 기반한 대표관계가 아니라)에 주목을 하여 정당이 정치기부금과 정치적 대표성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에 대해 연구의 주안점을 둔다. 이런 연구시도를 통해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정치기부금의 영향력이 정치적 맥락과 조건하에서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대의민주주의하에서 나타나는 대표성의 본질과 의미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한다.

Ⅲ. 데이터, 모델, 변수 측정

이 논문은 정치기부금의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으

로 정치기부금은 18대 국회의원이 모금한 후원회 기부금(2008-2011년)을, 그리고 정치적 대표는 선행 연구에 따라 일반 시민들의 정책선호에 반응하는 18대 국회의원들의 입법 행태(박영환 2015)를 구체적 측정 대상으로 삼아 분석을 진행한다. 선관위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된 후원회 기부금 데이터는 18대 국회의원의 임기에 해당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의원들이 매년 후원회를 개최하여 기부 받은 후원금 총액을 의원별로 정리가 된 자료이다. 정치적 대표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선거구민들의 정책선호에 반응하는 의원들의 입법 행태를 측정한다. 이를 경험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자료가 필요하다. 하나는 선거구민의 정책선호를 측정하는 데이터이고, 다른 하나는 국회에서 의원들의 의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의안에 대한 투표를 통해 의원들의 입법 행태에 대한 이념적 지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의안의 내용분석을 통해 그 의안이 어떻게 진보-보수의 이념적 차원을 구성하는지를 파악한 후 의안에 대한 찬성, 반대가 진보-보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어 최종적으로 이념 점수를 계산하였다(박영환 2015).²⁾ 선거구민의 정책선호는 해당 지역구 의원의 이념적 선호가 드러나는 입법 행태와 대응하는 것으로 지역민들의 평균적인 정책선호를 나타내는 것이다. 정치, 경제, 사회, 외교, 대북 문제에 대한 선거구민의 정책선호를 측정한 데이터가 필요한데 선거구민의 정책선호 데이터와 의원들의 입법 행태 데이터는 박영환(2015)의 연구에 활용된 데이터를 사용한다. 최종적으로 확보된 정치적 대표 데이터는 지역구 의원의 의안투표 이념 점수와 해당 지역구민의 정책선호 간의 절대적 거리를 측정한 것이다.

분석에 사용되는 모델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text{정치적 대표} = & \text{정치기부금} + \text{이념} + \text{연령} + \text{여자} + \text{광역시} + \text{재선} \\ & \text{이상} + \text{당직경력} + \text{관료경력} + \text{한나라당} + \text{민주당} + \text{한} \\ & \text{나라당} \times \text{정치기부금} + \text{민주당} \times \text{정치기부금} \end{aligned}$$

2) 이 데이터와 관련 변수 측정에 대한 설명은 박영환(2015)의 논의를 참조. 이와 관련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고 싶은 것은 분석에 사용되는 의안에는 예산안을 뺀 법률안, 동의안, 결의안이 포함되며 이념적 선호가 분명히 드러나는 쟁점의안(총 50개)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이 분석모델에서 종속변수는 정치적 대표이며 앞서 밝힌 것처럼 18대 의원들의 의안투표 이념점수에서 해당 지역구민들의 평균적인 정책선호를 뺀 절대적 거리이다. 따라서 이 절대적 거리가 멀어질수록(가까워질수록) 시민들의 정책선호에 대한 대표자의 대의활동의 반응은 낮은(높은)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정치기부금은 18대 의원의 임기에 해당하는 2008년에서 2011년까지의 후원회 모금액 총액을 구간별로 측정하였다.³⁾ 조절변수로서 정당은 더미변수로 각 의원들의 소속 정당을 측정하였다(한나라당: 1=한나라당 소속, 0=그 외 정당; 민주당: 1=민주당 소속, 0=그 외 정당).

기타 관련 변수들도 분석모델에 통제된다. 주로 의원의 사회경제적 지위, 인구통계학적 요인, 정치적 요인과 관련한 변수들이다. 미국의 경우 의원의 이념, 학력이 입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ire & Nigro 1976; Carnes & Lupu 2015; Richardson, Russell & Cooper 2004). 한국의 경우 그동안 의회의 입법생산성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나 인구통계학적 변수들을 간과한 측면이 없지 않으나 최근 정회욱·장혜영(2013), 정회욱 외(2016) 등의 연구에서 연령, 성별, 학력 변수들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치적 변수들로 의원의 당선 횟수, 당직 및 관료 경력을 고려한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당선 횟수 및 관료 경력과 의원의 입법 결과의 관계는 긍정적, 부정적, 유의미하지 않은 관계들이 혼재되어 나타났다(김형준 2004; 손병권 2004; 문우진 2010; 정회욱·장혜영 2013; 최정원 2010). 학력, 관료 경력, 당직 경력, 선수 변수들은 정회욱·장혜영(2013)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통제 변수들은 박영환(2015)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통제변수들의 코딩은 다음과 같다. 이념은 의원들의 주관적 이념 위치를 측정한 것으로 0(진보)-10(보수)으로 코딩되었다. 성별은 더미변수로 1=여자, 0=남자이고, 연령은 3그룹으로 나누어 1=40세 이하, 2=50세 이하, 3=61세 이상으로 코딩되었다. 광역시는 더미변수로 측정되었으며 7대 광역시는 1, 나머지 9개 시·도는 0으로 코딩되었다. 재선 이상 역시 더미변수로서 1=재선 이상, 0=초선이고,

3) 구체적인 후원회 모금액의 코딩은 다음과 같다. 1=3천만 원 미만, 2=3천만 원 이상-4천만 원 미만, 3=4천만 원 이상-5천만 원 미만, 4=5천만 원 이상-6천만 원 미만, 5=6천만 원 이상-7천만 원 미만, 6=7천만 원 이상-8천만 원 미만, 7=8천만 원 이상-9천만 원 미만, 8=9천만 원 이상.

관료 경력도 1=관료 경험, 0=관료 무경험으로 측정되었다. 당직 경력은 18대 국회에서 당직 경험 여부를 측정한 더미변수로서 1=당직 경험, 0=당직 무경험으로 코딩되었다.

IV. 통계분석 결과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각 집단별 의원들에게 기부된 후원회 모금액의 기초통계를 살펴보자. <표 1>에 나타나는 것처럼 정당별로 한나라당에게 기부된 후원금이 민주당보다 평균 천만 원 이상 더 많았다. 한나라당의 평균 후원회 기부금액은 7억 천여만 원이며 민주당의 후원금 평균 액수는 6억 9천여만 원이다. 각 집단별 평균 후원회 기부금에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액수는 5천여만 원 정도로서 당직 경험 여부 그룹과 선수 그룹에서 발생하였다. 먼저 당직을 경험한 그룹은 경험이 없는 그룹보다 후원금을 더 많이 거두었으며 평균 후원금액은 6억 9천여만 원이다. 초선 의원들보다 재선 이상 의원들이 5천여만 원 이상 더 거두었는데 평균 액수는 7억여 원이다. 반면 집단별로 평균 기부금의 차이가 제일 작은 집단은 관료 경험 여부이다. 관료 경험이 있는 그룹은 6억 9천 백여만 원을 기부 받았으며 관료 경험이 없는 그룹은 6억 8천 3백여만 원을 기부 받았다. 차이는 8백여만 원에 불과하였다.

한편 각 집단들 중에서 평균 정치기부금 액수가 가장 높은 집단은 여성 의원들로 나타났다. 여성 의원들은 남성 의원들에 비해 평균 4천여만 원이 많은 7억 2천여만 원을 거두었다. 연령별로는 50대(7억여 원), 60대 이상(6억 7천여만 원), 40대 이하(6억 6천여만 원) 순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7대 광역시를 제외한 시·도 지역 출신 의원들의 평균 후원금액이 7대 광역시 출신 의원들보다 2천여만 원이 더 많은 6억 9천여만 원을 모금하였다.⁴⁾

4) 각 집단별 후원회 기부금 기초통계를 계산하면서 한나라당의 조진형 의원의 2008-2011년 동안 후원금 총액은 65,171,000원으로 나타났다. 이 금액은 한나라당 전체 평균 후원금액의 1/10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기초통계 계산에서 이상치(outlier)로

<표 1> 그룹별 18대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 기초통계(단위: 원)

변수	하위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정당					
	한나라당	709198265.6	13734893.31	272013509	986152912
	민주당	696433792.7	23122987.92	355642359	925298923
당직					
	경력	715215568.3	19093244.98	272013509	925298923
	무경력	660941708.1	18224849.52	292360010	986152912
관료					
	경력	691739661.3	25205223	306160600	945371000
	무경력	683439394.6	15637334.62	272013509	986152912
선수					
	초선	652144339.7	21677683.06	274292000	924594300
	재선 이상	704059471.1	16691431.1	272013509	986152912
연령					
	50세 이하	660670274.2	32910262.88	292360010	903273346
	60세 이하	703989550.5	17074238.92	390001066	945371000
	61세 이상	675073605.2	23852733.52	272013509	986152912
성별					
	남자	683140282.8	13436582.36	272013509	960772523
	여자	726398941	80486574.72	306160600	986152912
광역시					
	광역시	672788512.1	23070486.53	272013509	986152912
	비광역시	695566087.3	15278493.72	274292000	945371000

이제 대의민주주의하에서 정치적 참여의 주요 자원 중에 하나인 돈의 영향력과 대표자의 대의활동의 관계는 어떠한지, 그리고 이 관계를 조절하는 정당의 영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자. OLS 회귀분석 결과가 <표 2>에 보고되고 있다. 의원들에게 기부를 한 후원금의 액수가 커질수록 의원들의 입법 행태는 선거구민의 평균적인 이념 선호와 멀어지는 경향이 있다. 대표자의 대의활동이 정치기부금액이 증가하면서 낮은 반응성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기부자의 정치자금 기부 동기 요인들 중 투자

작용하여 결측값으로 처리하였다.

(investment)적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기부자들의 후원금 기부 동인을 설명하는 경쟁적 이론들 중 투자적 관점에 따르면 특정 그룹(기업, 단체), 특정 개인은 투자를 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이득의 관점에서 기부를 한다는 것이다. 즉 기부자는 특정의 이해관계가 투영된 정치자금을 의원들에게 후원함으로써 입법 행위에서 특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특수 이익에 반응하는 의원들의 대표활동은 일반 시민의 평균적인 정책선호에서 멀어지는 양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표 1>의 기초통계 결과를 다시 해석해 보면, 당직 경험이 풍부하고 관료 경험이 있고 재선 이상의 의원들의 평균 후원회 모금액이 높는데, 그 이유는 당내 지위나 의회 내 지위를 고려할 때, 입법과정에서 이들의 역할이 결정적일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만일 이들이 거액의 정치자금에 반응하여 입법 행위를 한다면 특수 이익에 편향된 대의활동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표 2>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연령이 높은 의원일수록 정치적 대표성은 낮고 여성 의원일수록 그리고 보수적인 의원일수록 대표성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연령이 높은 의원의 경우 유권자의 정책입장보다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의정활동을 할 가능성이 크므로(박영환 2018) 정치적 반응성이 낮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포용심과 배려심이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Sapiro & Shames 2010) 여성 의원이 남성 의원에 비해 일반 시민들의 요구와 선호에 더욱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리고 보수적인 의원일수록 대표성이 높은 이유에 대한 적절한 설명은 18대 국회의 경우, 전체 유권자와 전체 의원 간의 평균적 이념 거리가 가까울 때 이런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2000년대 후반 일반 유권자의 평균적 이념 선호는 중도 보수로 나타났다.⁵⁾ 18대 전체 의원의 평균 이념점수 역시 중도 보수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표 3> 참조) 일반 시민과 의원의 평균적인

5) 2008년 18대 총선 때 실시한 유권자 의식조사에 의하면 일반 국민의 평균 이념점수는 5.5로 나타났다(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8).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N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786	5.538168	2.390361	0	10

이념 수렴은 보수적 의원의 정치적 반응성을 높이게 할 것이다.

재선 이상의 의원일수록, 그리고 관료 경력이 있는 의원일수록 정치적 대표성은 높게 나타났다. 재선 이상의 의원은 국회나 정당 내에서 유무형의 정치적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선수가 높은 의원들 각 개인 의원들 간 신뢰로 형성된 네트워크, 국회 상임위원회나 당내의 요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이것이 의정활동에 힘을 실어 주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 경력은 민원 업무나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일들에 대한 경험을 풍부히 쌓게 하므로 유권자들의 정책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 기타 통제변수로 광역시 출신의 의원일수록, 당직 경험이 있는 의원일수록 정치적 대표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들은 아니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당이 정치기부금과 정치적 대표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이다. <표 2>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정당이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한나라당의 경우 유의미하게 나타났지만 그 방향은 한나라당 소속 의원일수록 정치적 대표성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과 정치적 대표성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치기부금이 정당과 결합하였을 때 이야기는 달라진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치기부금의 상호작용은 의원들의 대의활동의 반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이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정치자금의 기부에 있어 정당의 조절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즉 정치기부금이 정치적 대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정당 브랜드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한나라당에 기부된 정치기부금의 영향력이 민주적 반응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분명하다.⁶⁾ 앞서 밝힌 것처럼 오늘날 정치기부금의 양상은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다. 최근 들어 미국의 연방하원 선거에서 후보자들이 모금한 선거자금들 중 약 60퍼센트는 해당 지역구의 유권자가 아닌 전국적인 유권자들에 의해 기부되고 있다. 지역적 경계를 벗어난 정치기부금은 대표자들의 위임 방식을 바꾸게 만드는

6) 다른 측면에서 한나라당에 더 많이 기부된 후원금으로 금권정치의 영향력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겠지만, 후원금 기부자의 정확한 기부의도를 알 수 없는 이상 선행 연구의 이론에 기초하여 데이터의 결과를 충실히 해석할 수밖에 없다.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리적 한계를 넘어선 전국적인 유권자들이 기부하는 후원금은 누구에게로 향하게 되는가? 여기서 정당의 브랜드가 중요해진다. 유권자들은 의회 내에서, 그리고 행정부와 의회의 관계에서 입법 생산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의회의 다수당이나 국정을 책임지는 정당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 또 유권자와 이념적 선호가 비슷한 정당에게 역시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가능성이 높다. 18대 국회에서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는 정당은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다수당이다. 그리고 <표 3>에서 나타난 것처럼 한나라당 평균 이념 점수는 6.3으로서 3.8인 민주당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보수적이며 일반 국민의 평균적인 이념(중도 보수)과도 가깝다. 그 결과 한나라당의 경우 정치기부금의 액수가 민주당보다 많았으며 그 영향력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정치적 반응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표 2> OLS 회귀분석: 정치기부금과 정치적 대표성의 관계에서 정당의 조절효과

	회귀계수	표준오차
정치기부금	.636*	.382
이념	-.347*	.188
연령	.598**	.292
여자	-1.731**	.869
광역시	-.285	.389
재산 이상	-1.169***	.447
당직 경력	-.230	.248
관료 경력	-1.047**	.474
한나라당	8.551***	2.797
민주당	3.199	3.255
한나라당×정치기부금	-.749*	.399
민주당×정치기부금	-.528	.443
절편	-.119	3.228
N	158	
adjusted R ²	.3515	

▪ 종속변수: 정치적 대표(지역구 의원의 의안투표 점수-지역구민의 평균 정책선호)
 ▪ *p<.10, **p<.05, ***p<.01

<표 3> 정당별 평균적 이념 점수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
한나라당	6.270666337	0.088045014	3.125	8
민주당	3.793143233	0.164327631	1.666667	5.833333
전체	5.545148008	0.116859431	0.8333333	8

· 한국정치학회·중앙일보(2008)

V. 결론

정치참여는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다. 정치참여를 결정하는 주요 정치적 자원으로서 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러나 많은 정치학자들은 정치참여와 정치적 대표성에 미칠 돈의 영향력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금권에 의해 정치참여가 결정되고 대표자들의 정책결정이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대의민주주의의 앞날이 밝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대의민주주의에서 돈의 긍정적인 역할은 잘 부각되지 않는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자신들의 정책 견해와 정책 대안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돈은 유용한 정치적 자원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미디어를 활용한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이 증가하면서 정보 공유의 촉매제로서 돈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정치과정에서 필요악으로 여겨지는 정치자금에 대한 연구는 주로 정치자금의 제도화 과정 및 개선 방안,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에 관한 기초적 연구에 머물러 있다. 본 논문은 정치기부금이 대의민주주의에서 함의하는 바를 이론적으로 정리하면서 경험적으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흥미로웠다. 정당의 브랜드하에 기부된 정치자금의 영향력은 정책결정과정에서 대표자들로 하여금 시민들의 평균적인 정책선호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만들었다. 특히 국정을 책임지고 일반 국민과 정치적 이념이 가까운 정당일수록 정치자금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긍정적이었다. 이러한 사실은 정치기부금이 국회의원의 정치적 대표성에 미치는 영향력은 정당의 브랜드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치자금과 정치적 대표성의 연구에서 정당의 역할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에 관한 새로운 논의를 제공한다.

현대 사회가 전문화, 복잡화, 도시화가 되면서 인구의 구성에 이질성이 나타나고 이슈의 전국화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특수한 지리적 한계에 머물러 있던 대표의 위임 방식이 전국적으로 교차하고 포괄적인 방향으로 대표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어 졌다. 특히 정당이 현대 정치의 주요 행위자로 자리매김되고 책임정당모델이 등장하면서 정당은 일반 시민과 유권자의 정치적 연계를 긴밀히 도모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나아가서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정치·사회 문제들을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의원들의 입법 행위에 정당의 구속력이 커지면서 대의민주주의의 대표적인 대의기구로서 정당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정치기부금의 정치적 대표성에 대한 단순한 영향력은 투자적 관점에서 대표자들이 특수이익에 반응하여 입법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당에 의해 조절된 정치기부금의 영향력은 다르게 나타났다. 한 사회가 처한 문제해결의 주요 당사자로서 국정을 주도하고 이념적으로 일반 국민과 가까운 정당에 정치기부금이 몰리고 이에 정당은 적극적으로 기부자의 요구에 반응을 함으로써 대표자의 정치적 대표성은 증진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점에서 후속연구에서는 금권정치와 대의정치가 있어 조절변수로서 정당의 역할과 효과를 체계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싶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18대 국회에 제한적이다. 정당의 브랜드가 정치기부금과 정치적 대표성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시계열적 자료가 필요하다. 후속연구는 시계열 자료를 확보하여 이와 같은 연구주제를 심도 있게 다룰 필요가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대의민주주의 성공적인 작동에 있어 핵심원리인 정치적 대표성의 증진에 있어 정당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특히 대표자의 정치기부금의 긍정적 역할을 기대하는 측면에서 정당 브랜드의 순기능을 새롭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논문 및 단행본

- 김영래 (1994). “정치자금제도의 변천과정과 특징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8집. 1호, pp. 27-49.
- 김용호 (2002). “고비용 정당구조와 정치자금 개선 방안.” 『대한정치학회보』. 10집. 2호, pp. 295-306.
- 김의성 (2004). “정치자금과 선거결과: 16대 총선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8집. 2호, pp. 285-302.
- 김의성·임성학 (2002). “한국정치자금의 규모와 조달패턴: 선거 관리 위원회의 공식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18권. 3호, pp. 121-149.
- 김형준 (2004). “참여민주주의와 의회정치: 노무현 정부에서 참여정치의 신장과 한계.” 『의정연구』. 17권, pp. 57-93.
- 문우진 (2010). “국회의원 개인배경과 입법: 입법 메커니즘과 16대와 17대 국회의 입법생산성.” 『의정연구』. 16권. 1호, pp. 35-67.
- 박영환 (2015). “경제적 불평등과 정치적 대표: 18대 국회 사례.” 『현대정치연구』. 8권. 1호, pp. 5-37.
- _____ (2016).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대표성 평가: 정당의 대표 역할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19권. 1호, pp. 245-268.
- _____ (2018). “지방의원의 대표유형과 의정활동: 제10대 경상북도의회.” 『미래정치연구』. 8권. 1호, pp. 36-60.
- 손병권 (2004). “의원의 의정활동: 의원의 상임위원회 활동 참여에 대한 평가와 전망.” 『한국정당학회보』. 3권. 2호, pp. 199-224.
- 심지연 (2003).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정당학회보』. 2권. 1호, pp. 239-273.
- 엄기홍 (2006). “정치자금의 기부목적, 정책영향 혹은 선거지원? 2004년 고액기부자 명단의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0집. 3호, pp. 191-209.
- _____ (2008).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 요인: 2004-2006년 기부금액에 대한 경험적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2집. 1호, pp. 49-70.
- 임성학 (2002). “16대 총선 선거자금의 조달과 지출: 인터뷰자료의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36집. 3호, pp. 245-268.
- 전용주·서영조 (2005). “개정 정치자금법에 대한 비판적 논의와 정책 대안: 정치자금 기부규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 11권. 1호, pp. 93-119.
- 정준표·김진하·김정도 (2013). “선거와 정치자금: 제19대 총선의 정치자금 결정 요

- 인 분석.” 『국제정치연구』. 16권. 1호, pp. 221-242.
- 정희욱·장혜영 (2013). “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국회 생산성과의 관계: 18대 국회를 대상으로.” 『한국정치연구』. 22집. 2호, pp. 49-74.
- 정희욱·윤종빈·박영환 (2016).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개인적 수준 변수들의 영향력 분석.” 『정치·정보연구』. 19권. 1호, pp. 243-274.
- 최정원 (2010). “국회의원의 사회경제적 배경.” 의회정치연구회 편. 『한국 국회와 정치과정』. 오름, pp. 73-99.
- Ansolabehere, Stephen, John de Figueiredo and James Snyder (2003). “Why is There so Little Money in U.S. Politic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7. No. 1, pp. 105-130.
- Box-Steffensmeier, Janet M. and Jay K. Dow (1992). “Campaign Contributions in an Unregulated Setting: An Analysis of the 1984 and 1986 California Assembly Elections.” *Wester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45. No. 3, pp. 609-628.
- Carnes, Nicholas and Noam Lupu (2015). “Rethinking the Comparative Perspective on Class and Representation: Evidence from Latin America.”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9. No. 1, pp. 1-18.
- Durden, Garey C. (1976). “The Special Interest Bias and Government Growth.” *Atlantic Economic Journal*. Vol. 4. No. 3, p. 87.
- Fuchs, Easter R., E. Scott Adler and Lincoln A. Mitchell (2000). “Win, Place, Show: Public Opinion Polls and Campaign Contributions in a New York City Election.” *Urban Affairs Review*. Vol. 35. No. 4, pp. 479-501.
- Gimpel, Games G., Frances E. Lee and Shanna Pearson-Merkowits (2008). “The Check Is in the Mail: Interdistrict Funding Flow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52. No. 2, pp. 373-394.
- Grenzke, Janet (1988). “Comparing Contributions to U.S. House Members from Outside Their Districts.”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Vol. 8. No. 1, pp. 83-103.
- Jacobson, Gary C. (1978). “The Effects of Campaign Spending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58-1986.”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72. No. 2, pp. 469-491.
- _____ (1980). *Money In Congressional Election*.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_____ (1990). "The Effect of Campaign Spending in House Elections: New Evidence for Old Argument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 34. No. 2, pp. 334-362.
- _____ (1997). *The Politics of Congressional Election*. New York: Longman.
- Hall, Richard and Frank Wayman (1990). "Buying Time: Moneyed Interests and the Mobilization of Bias in Congressional Committee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84. No. 3, pp. 797-820.
- Kay, James B. and Paul H. Rubin (1981). "The Impact of Labor Unions on the Passage of Economic Legislation." *Journal of Labor Research*. Vol. 2. No. 1, pp. 133-145.
- Meire, Kenneth J. and L. G. Nigro (1976). "Representative Bureaucracy and Policy Preferences: A Study in the Attitudes of Federal Executives."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Vol. 36. No. 4, pp. 458-469.
- Morton, Rebecca and Charles Cameron (1992). "Elections and the Theory of Campaign Contributions: A Survey and Critical Analysis." *Economics and Politics*. Vol. 4. No. 1, pp. 79-108.
- Mutz, Diana C. (1995). "Effects of Horse-Race Coverage on Campaign Coeffers: Strategic Contributing in Presidential Primaries." *Journal of Politics*. Vol. 57. No. 4, pp. 1015-1042.
- Poole, Keith T. and Thomas Romer (1985). "Patterns of Political Action Committee Contributions to the 1980 Campaigns for the United States House of Representatives." *Public Choice*. Vol. 47. No. 1, pp. 63-112.
- Powell, Lynda W. (2006). "The Influence of Campaign Contributions on the Content and Passage of Bills: Modeling Effects of Institutional Design and Partisan Context in State Legislatures." Paper prepared for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ugust 31-September 2, 2006, Philadelphia, PA.
- Richardson, Lilliard E. Jr., Brian E. Russel and Christopher A. Cooper (2004). "Legislative Representation in a Single-Member versus Multiple-Member District System: The Arizona State Legislature."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Vol. 57. No. 2, pp. 337-344.
- Sapiro, Virginia and Shauna L. Shames (2010). "The Gender Basis of Public Opinion." Barbara Norrander and Clyde Wilcox (eds). *Understanding Public Opinion*. Washington, D.C.: CQ Press, pp. 5-24.

- Snyder, James M. (1990). "Campaign Contributions as Investments: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80-1986."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8. No. 6, pp. 1195-1227.
- _____. (1993). "The Market for Campaign Contributions: Evidence for the U.S. Senate 1980-1986." *Economics and Politics*. Vol. 5. No. 3, pp. 219-240.
- Stratmann, Thomas (2002). "Can Special Interests Buy Congressional Votes? Evidence from Financial Services Legislation."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Vol. 45. No. 2, pp. 345-374.
- _____. (2005). "Some Talk: Money in Politics. A (Partial) Review of the Literature." *Public Choice*. Vol. 124, pp. 135-156.
- Welch, William P. (1982). "Campaign Contributions and Legislative Voting: Milk Money and Dairy Price Supports." *Western Political Science Review*. Vol. 35. No. 4, pp. 478-495.

2. 기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2008).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유권자 의식 조사."

한국정치학회·중앙일보 (2008). "18대 국회의원 가치관 및 정책노선 조사."

| 논문투고일 : 2018년 02월 18일 |

| 논문심사일 : 2018년 02월 22일 |

| 게재확정일 : 2018년 03월 15일 |

ABSTRA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Vol. 25 No. 1 (2018)

The Effect of Political Contributions on Political Representation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under Party Brands in South Korea

Young Hwan Park

(Dept. of Political Science, Yeungnam University)

Political consequences caused by disparities in political participation are depending upon political resources. Among other things, money is virtually essential in politics. Many political scientists are concerned about the power of money in the process of integrating opinions of citizens as economic inequality aggravates. In particular, as political donations make up a large portion of political funding, the possibility that donors can take control of political parties has been controversial in unequal democracy.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explores how political contributions make an impact on political representation which is a core principle of representative democracy. What is more,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roles of political parties that would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contributions and representation. Using data of political funds raised by members of National Assembly in Korea, together with data measuring political representation of members of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paper examines the research topics as mentioned above.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political contributions collected under party brands increase democratic responsiveness of representatives.

28 아태연구 제25권 제1호 (2018)

- Key words: Political Contribution, Political Representation, Party Brand, Political Participation, Unequal Democracy